

목포역~삼학도 인입철도 반세기만에 철거

광장 등 휴식공간 조성

삼학도 복원화사업 탄력

목포 원도심을 가로지르던 삼학도 인입철도가 반세기만에 철거된다. 삼학도 인입철도는 목포역~삼학도 입구~삼학부두를 연결하는 1.8km 구간이다.

이 구간은 1965년 12월에 설치돼 석탄, 곡물, 목재, 면화 등을 수송하는 목포역 지선 기능으로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석탄 수송방식이 육로 수송으로 전환되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으로 한국제분 공장이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것은 물론 오는 2015년에는 석탄부두도 신항으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그 기능이 상실됐다. 또 동명동 일대 200여가구 주민들



목포 원도심을 가로지르던 삼학도 인입철도 전경. 지난 1965년 말 설치된 목포역~삼학도 입구~삼학부두 1.8km 구간은 반세기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은 주택과 철도 사이 거리가 10m 정도 인입철도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주

민 민원을 해소하고 삼학도 복원화사업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철도폐지 구간 총1.8km 구간 중 0.4km 구간은 목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그대로

존치한다.

목포시는 목포역~동명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0.65km 도심 구간은 인도 등 도로개설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삼학도 공원 내에 편입된 0.75km 구간은 중앙광장, 대공연장, 산책로 해변 광장 등 휴식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삼학도 공원화 사업 핵심인 호안수로 2.2km를 완전 개통하고, 한국제분 철거 부지를 산 형태로 복원하는 물론 야외 대공연장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은 오는 2016년까지 1399억원을 투입해 호안수로, 산책로, 교량, 파크골프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인근에는 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목포어린이 바다과학관, 요트마리나 시설 등이 들어서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공연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내 손을 잡아줘'가 지난 4일 오후 무안군 무안읍 달애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려 관내 초·중학생 300여명이 관람했다. 이 뮤지컬은 최신 유행 아이돌 음악과 아이들이 현실에서 잘못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대사로 구성해 호평을 받았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해남, 맞춤형 암관리 4년 연속 '우수'

해남군이 개인별 맞춤형 암 검진으로 전라남도 암 관리 사업 평가대회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해남군 수검률은 지난 10월 말 기준 5위이며 올해 암환자 240명에

게 의료비 1억9000만원의 지원했다. 이 같은 성과는 해남을 43개 권역으로 나뉜 암 검진팀을 편성,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친 결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의료 취약지역 34곳은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 순회하며 2672명을 검진했다.

군은 내년에도 1만3788명을 검진해 발견된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 취약계층 건강검진 권의를 위해 순회 검진을 강화하는 다양한 노력이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무안 친환경쌀, 서울 은평구도 학교급식

내년부터 2년간... 서울 어린이집 등 600t 공급중

무안에서 생산하는 고품질 친환경 쌀이 내년부터 2015년까지 2년 동안 서울시 은평구 관내 학교에 급식으로 공급된다.

무안군은 5일 "지난달 21일 실시한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쌀 최종 평가회'에서 무안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김태영)이 생산하는 친환경 쌀이 학교급식용 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차 서류평가 20%,

2차 현장평가 50%, 3차 시식 및 품질평가 30%로 1·2차 평가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된 전국 8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최종 3차 평가를 거쳐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쌀 공급업체'로 최종 결정됐다.

무안에서 생산하는 친환경 '우렁이랑 쌀'(사진)은 전남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쌀 공급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무안 친환경 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효과도 거두게 됐다.



무안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고품질친환경농산물조합법인(대표 김영현)에서 생산되는 무안지역의 친환경 쌀은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557곳에 600여t을 공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생산과정은 물론 주요 RPC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김영현)에서 생산되는 무안지역의 친환경 쌀은 10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에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557곳에 600여t을 공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무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소비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고품질 브랜드로 자리 잡아 갈 수 있도록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생산과정은 물론 주요 RPC에 대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완도산 해조류 화장품 원료 공급

郡-코씨드바이오팜 협약

완도산 해조류가 화장품 원료로 공급될 전망이다.

완도군은 5일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개발 업체인 (주)코씨드바이오팜과 완도산 해조류를 화장품 및 식품 개발 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씨드바이오팜은 천연물을 소재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을 개발하고 제품 콘셉트에 맞는 다양한 효능 평가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국내의 유명 화장품 회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한 유망 벤처기업이다. 양측은 세계 최초로 해조류를 주제로 열릴

'2014 완도 국제 해조류박람회'에 기능성 뷰티,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 전시하기로 합의했다.

김종식 군수는 "해양생물 클러스터 구축 기반이 탄탄하고 해조류의 최대 생산지인 완도와 코씨드바이오팜이 협력, 해조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은 코씨드바이오팜 박성민 대표를 완도 명예대장인 다시마 면장으로 위촉했다.

/완도=정은조기자 서부취재본부장

전북

"동학농민혁명 시발점은 고부봉기"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장 학술대회서 주장

정읍 고부봉기(1894년 1월10일)와 고창 무장기포일(1894년 3월20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유력 후보로 맞서는 가운데 고부봉기일을 동학농민운동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정읍 전북과학대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유영렬 전 국사편찬위원장은 기초강연을 통해 "고부봉기는 동학농민군이 최초로 실력행사를 해 고부관아를 습격·점령한 일대 사건"이라며 "고부봉기가 전체 동학농민운동

의 제1단계이자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고부봉기는 지방관을 문제 삼는 민란의 범위를 넘어 거사 계획에서부터 부패한 중앙권력 축출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전봉준 등 지도자들의 반봉건·반외세 의지가 담긴 혁명전쟁의 전초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장기포에 대해서는 "고부봉기 관련자에 대한 탄압을 계기로 일어난 연속선상의 사건"이라며 "동학농민전쟁의 두 번째 단계인 '제1차

혁명전쟁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위원장은 "무장기포는 혁명전쟁의 선전포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면서도 "동학농민전쟁의 시발점이라고보다는 2단계인 혁명전쟁의 시발점으로 봐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동학농민운동의 3단계는 농민군이 자치기관인 집강소를 설치하고 혁명공약을 실천한 폐정개혁실천기(1894년 5월7일~9월), 4단계는 농민군이 재봉기해 일본군과 맞서 싸운 제2차 혁명전쟁기(1894년 9월~12월)로 분류했다.

유 전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학



5일 정읍 전북과학대에서 열린 '동학농민혁명 제119주년 기념 학술대회'.

농민운동의 시발점을 둘러싼 논쟁이 학문보다는 지역의 이해관계로 과열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동학농민혁명 기념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에 대해서 집중조명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는 지난 2011년부터 전 문역사학회와 함께 서울과 정읍에서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 된 고부봉기에 대해서 집중조명하고 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

단신

고창, 특정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협약

고창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이강수 고창군수, 문숙란 아산병의원장, 박태환 군의회위원장 및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질환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 확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특정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를 추천하고, 진료비 지급 관련 행정적 지원, 정읍아산병원은 군에서 추천 받은 특정질환 저소득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고창=음창영기자 cy0370@

순창, '남성위한 골드쿡' 과정 교육 개설

순창군이 지역 남성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의 위해 지난 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실시한 '남성을 위한 골드쿡(Gold Cook)' 과정 교육을 개설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대 교수진을 초빙해 노후준비 진단서비스, 영양소와 식품에 대한 기초적 이해, 한식문화

의 우수성과 저염식의 중요성 등의 다양한 분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남성을 위한 후다닥 빠르고 쉬운 요리' 등 실습 위주의 다양한 요리법을 배우고 강천산 산책로를 걷는 힐링산행과 지역주민들이 마련한 문화공연, 레크레이션 시간도 가졌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남원, 향교동 향기원에 로맨틱 트리 설치

남원시는 연말연시를 맞아 시민화합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남원시 향교동 '도심 속 향기원' 내에 로맨틱 트리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향기원은 계절마다 아름답고 다양한 꽃과 나무가 식재돼 시민과 관

객들이 자주 찾고 있다. 남원시 관광발전협의회에서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트리만들기 경진대회를 실시해 우수 트리작품을 만든 8개 팀에게 30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예정이다.

/남원=백성기자 bs8787@

도교육감, '국민의례 폼페이 발언' 사과

전북도교육청 장학사의 국민의례 폼페이 발언에 대해 전북도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장학사는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5일 간부회의를 열어 도 교육청 박도 장학사의 '국민의례가 폼페이' 발언과 관련해 "장학사가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교육감으로

서 할 말이 없다. 도민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됐다"며 사과했다. 도교육청은 해당 장학사를 지난 4일자로 대기발령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인사조치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안전한 정읍만들기' 합동 순찰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4일 밤 지역치안협의회(의장 김성기 시장) 위원들과 함께 정읍역 등 지역 시가지에서 '안전한 정읍만들기'를 위한 밤거리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정읍시장, 서장, 시의회 의장 및 교육장 등 각급 기관 단체장과 협력단체장, 경찰관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정읍경찰서(서장 김동봉)는 지난 4일 밤 지역치안협의회(의장 김성기 시장) 위원들과 함께 정읍역 등 지역 시가지에서 '안전한 정읍만들기'를 위한 밤거리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순찰에는 정읍시장, 서장, 시의회 의장 및 교육장 등 각급 기관 단체장과 협력단체장, 경찰관 등 60여명이 참여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전북대 교수회 내년 총장선거 직선제 결의 파문

투표결과 81% 찬성

전북대 교수회가 2014년 9월 시행되는 총장선거 투표방식으로 '직선제' 방식을 결의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전북대 교수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현행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꿀지를 묻는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전체 유권자 988명 중 716명이 참여해 찬성 586표(81.8%), 반대 113표(15.8%)로 직선제 회귀가 채택됐다.

전북대 교수회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현행 간선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간선

제는 선거 없는 공모제 형태의 선출 방식으로 직선제보다 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서 "이번 교수회의 결정을 가지고 대학 본부에 직선제로 회귀하는 학칙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회의 투표결과가 법적 효력이 없어 대학본부의 지원이 없이는 총장선출 방식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교수회는 지난해 7월 24일 대학본부와 공동으로 '총장 선출방식'을 놓고 교수총투표를 진행해 914명 중 53.4%가 찬성해 직선제를 폐기시켰던 전력이 있다.

또 지난해 8월 교수회 평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 학칙까지 개정할 상태다.

/전주·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